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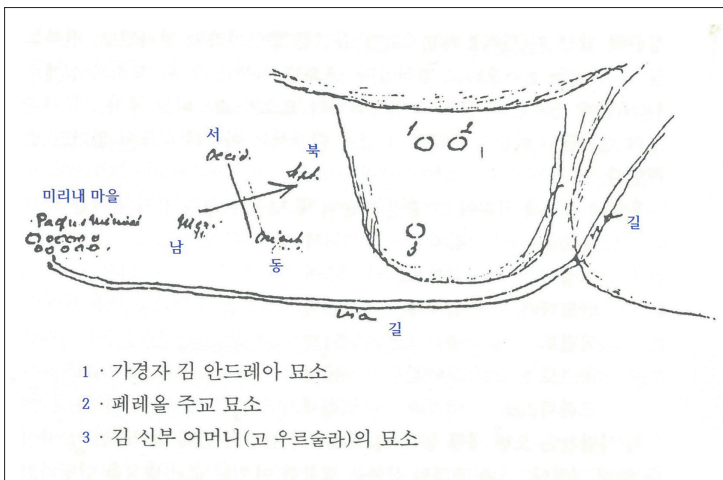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특집]

미리내 김대건 신부 묘소의 과거와 현재 ①

이번 호부터는 김대건 신부가 묻혀 있었고 또 유해가 발굴된 미리내 묘소가 어떠한 변화를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가 2021년 4월 15일 ‘안성 미리내성지 등록문화재 등재를 위한 전문가 콜로키엄’에서 발표한 글[김대건 신부 묘소와 김대건기념성당, 미리내 성요셉성당의 역사적 의미]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미리내 김대건 신부 묘소의 조성과 재발견 (1846년 가을 / 1883년)

저번 호에서 신자들이 김대건 신부의 시신을 수습하여 미리내로 이장했고, 그 묘소를 순례했다는 사실을 기해병오 시복재판록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김대건 신부에게 사제 서품을 주고 그와 함께 조선에 입국했던 제 3대 조선대목구장 페레올 주교는 1853년 2월 3일 서울에서 선종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생전의 소망대로 4월 11일 김 신부 묘소 옆에 안장되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김 신부의 모친인 고 우르술라도 김 신부 묘소 근처에 안장되었습니다.



[지도] 1901년 발굴 당시 작성 *메모 번역 추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체포와 순교』(2021년), 359쪽]



[사진] 유해 이장 이후 김대건 신부 묘소 자리
[『가톨릭청년』 2권 9호(1934년 9월), 89쪽]

1866년 대박해로 미리내를 비롯한 신앙공동체들은 파괴되었고, 김대건 신부와 페레올 주교의 묘소도 돌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1876년 선교사제들이 다시 조선에 입국하면서 신앙공동체가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1883~1884년 미리내를 방문한 뮌텔 신부는 공소를 다시 설정하고, 김대건 신부와 페레올 주교의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공소에서 200~300m 떨어진 묘소들은 1866년 대박해 이래 17년 동안 방치된 탓에 나무와 수풀이 무성했다고 합니다. 이에 뮌텔 신부는 신자들에게 나무와 풀을 베어내고 묘소를 다듬게 했으며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뮌텔 신부의 1884년 2월 28일 사목서한(A-MEP, Vol.580 f.1196)] 이렇게 제 모습을 찾게 된 김 신부 묘소와 페레올 주교 묘소는 이후 사목방문을 하는 선교사제는 물론 신자들의 참배를 받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미리내 김대건 신부 묘소, 선교사제와 신자들의 순례지가 되다 (1901년 유해 발굴, 이전)

“밤이 되기 전에 (미리내) 마을에서 5분 거리에 있는 페레올 주교님과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묘를 순례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신앙선조의 묘를 그곳에서 참배하고 그분들의 뜻을 기릴 수 있어서 저는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그분들의 묘 앞에 서있노라니 지난날의 조선 천주교회가 제 머릿속에 떠올라 진한 감동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신자들이 꽤나 정성껏 관리하기는 했지만 두 분의 묘는 초라했습니다. 깊은 골짜기 낮은 구릉 발치에 있는 밭에 놓인 묘는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앙드레 신부의 1888~1889년도 연말 보고서(A-MEP, Vol.581 ff.385~386)]

1888년에 설정된 왕립본당의 초대주임 앙드레 신부는 1888년 12월 25일 성탄절 때 미리내를 방문했는데 김대건 신부와 페레올 주교 묘소를 신자들과 함께 참배했습니다. 1896년 미리내본당이 설정되고 초대 주임으로 강도영 신부가 부임했는데 그는 사망할 때까지 33년간 미리내에서만 재직했습니다. 강 신부는 김 신부와 페레올 주교의 묘소를 관리하고, 유서 깊은 미리내에서 사목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천주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여겼습니다.

김대건 신부의 묘소의 발굴과 유해 이장은 1839년(기해)과 1846년(병오) 순교자의 시복수속 과정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1886년 당시 뮌텔 신부의 뒤를 이어 시복수속을 담당하고 있던 푸아벨 신부는 김 신부의 관을 확인하기 위해 봉분을 헐었는데 관 위의 횡대를 발견하고는 더 이상 땅을 파지 않고 새로 봉분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후 정식 발굴과 이장은 1901년 5월 21일에 이루어졌으며 김 신부의 유해를 수습한 다음 횡대를 무덤 안에 다시 넣고 흙으로 메웠습니다. 발굴된 유해는 강도영 신부의 사제관에 하룻밤 안치되었다가 5월 22일 무덤에서 나온 관과 함께 옮겨져 5월 23일 용산 예수성심신학교에 도착했습니다.

1890년 제7대 조선대목구장으로 임명된 뮌텔 주교는 1902년에 하우현·미리내·왕립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1884년 공소 방문 이래 18년 만이었습니다. 11월 16일 미리내성당을 떠나 다른 행선지로 출발하기 전 뮌텔 주교는 페레올 주교의 묘소와 이미 유해가 이전된 김 신부의 묘소 자리를 순례했는데 이때 신자들이 대거 따라왔다고 합니다.[『뮌텔 주교 일기』 3, 한국교회사연구소, 191~192쪽]

1911년 조선을 여행했던 독일 성 베네딕도회 오틀리엔 연합회의 장상 베버 총아빠스는 4월 18~19일 미리내를 방문했는데 19일에는 산에 올라 페레올 주교 묘소와 김 신부의 빈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베버 총아빠스는 김대건 신부를 사랑하는 신자들이 아직도 그의 빈 무덤을 기억한다고 기록했습니

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분도출판사, 282쪽]

이와 같이 김대건 신부의 묘소는 유해가 발굴되어 서울로 이전되기 전이나 이전된 이후에도 순례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진] 앙드레 신부 [『상교우서』 27호(2010년 여름호)]



[사진] 1911년 4월 당시 강도영 신부와 미리내 소년들 (베버 총아빠스 촬영) [『고요한 아침의 나라』, 287쪽]

김대건 신부 유해의 귀환과 묘소 재정비 (1925년 이후 / 1928년)

1901년 5월 이래 미리내의 김 신부 묘소는 유해가 없는 무덤 자리가 되었지만, 1925년 시복을 계기로 미리내본당에 김 신부의 유해 일부가 되돌아옴으로써 ‘원(原) 무덤’이라는 의미가 부각될 수 있었습니다. 강도영 신부는 1925년 8월과 9월에 걸쳐 서울대목구 부대목구장인 드브레 주교에게 순교 복자들의 유해를 요청했습니다. [『강도영 신부 마르코 서한집』, 271~273쪽]

요청한 복자들의 유해에는 당연히 김대건 신부의 유해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유해가 언제 미리내성당에 분배되었는지는 강도영 신부의 서한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현재 김대건기념성당에 안치되어 있는 발뼈 조각과 관 조각이 이때 분배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이후 김대건 신부 묘소는 페레올 주교의 묘소와 함께 1928년 7월 ‘복자(김대건 신부) 기념경당’의 건립을 계기로 대대적으로 정비·단장되었으며, 몇 차례 변화를 겪으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기념경당 건립과 함께 김대건 신부와 페레올 주교 묘소 모두 “양회(洋灰, 시멘트)로 분상(墳上, 봉분)을 만들고 둘레에 담을 쌓아 장래 사제들의 묘지로 정했다”고 합니다. [『경향잡지』 645호(1928년 9월), 398~39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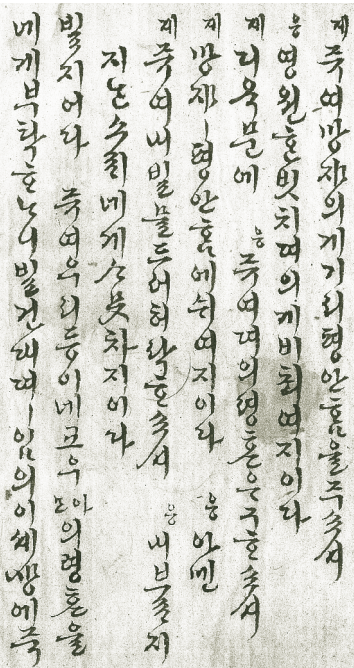
당시 공사를 참관했던 신학생의 글 [『타벨라 부록』 34호(1928년 10월 20일)]에 의하면 페레올 주교의 묘소를 먼저 단장하고 그 다음에 김대건 신부의 묘소를 조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와 역사』 476, 한국교회사연구소, 14쪽] 김대건 신부의 묘소를 중심으로 사제 묘지를 만들려고 했던 강도영 신부는 1929년에 선종했고, 그 자신의 묘소가 김대건 신부 묘소 왼쪽에 조성되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교우 초상이 나면 가서 연도하고”

연구소에서 대조역주한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에서 1846년 병오박해 때 순교하신 성 김임이 데레사에 대한 증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인보다 열 살 어린 이복동생 김 가타리나는 성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증언을 하셨습니다.

“형님은 어려서부터 열심으로 수계하여 도리책(道里冊: 교리서)을 잠심(潛心: 마음속 깊이)하여 보고 성인·성녀의 행적을 보면 마음에 박혀 부러워하여 그 행실을 효법(效法: 본받음)할 마음이 간절하매, 주(主)를 독실히 섬겨 애주애인(愛主愛人: 주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함)하여 혹 교우 초상(初喪)이 나면 가서 연도(煉禱:: 위령 기도)하고 자기 손으로 친히 염습(殮襲: 시신을 씻기고 수의를 입혀 염포로 묶는 일)하여 어려운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더니...”[『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1, p.121.]



『천주성교예규』 중에서

신앙선조들에 대한 증언기록에서는 교우 여럿이 모여 연도했다는 표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포졸에게 잡혔을 때 갖고 있던 책 『성교예규(聖敎禮規)』가 발견되어 신자임이 들통나기도 합니다. 『성교예규』는 성 다블뤼 주교가 한문본에서 당시 조선의 장례 실정에 맞게 편집해 두 권으로 번역한 『천주성교예규』를 가리킵니다. 1권에는 선종을 돕는 규식, 임종을 돕는 규식, 병자를 권면하는 규식, 임종경이 수록되어 있고, 2권은 상장 방법, 상장 예절, 어린이 장사 예절, 상례문답이 담겨 있습니다. 신앙선조들이 보던 연도책이 『천주성교예규』라면, 오늘날 연도책으로는 『상장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천주교회는 11월 위령성월에 더욱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죽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연옥 영혼을 위해 연도를 올리는 아름다운 전통을 신앙선조로부터 물려받았기에, 초상이 났을 때 천주교 신자라면 그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연도를 바치고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위로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를 이겨내고 예전과 같이 모여 연도 바치며 함께 신앙 생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백신욱 베드로(연구원)

소식과 공지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안성분당 자료집』(전 2책)과 함께 ‘선교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과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Ⅲ’ 『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하고 전문연구자의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